

사랑받지 못하는 '고향사랑 상품권'

전남 시·군 11곳 발행...가맹점 수·판매금액 미미 사용 범위 확대·유통시스템 구축 등 대책 시급

광전연 발표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위해 전남 각 시·군이 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구매자 역시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지역 내에서 제대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의 일종인 '고향사랑 상품권'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그 효과에 주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역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9일 발표한 '광전 리더스인포'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도입 증가에 따른 지역의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서 김 위원은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의 도입 및 활용을 위해서는 상품권 사용 범위 확대와 지역화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유통시스템 구축, 지역 맞춤형 판매촉진 활동 강화 등 고향사랑 상품권의 효과적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향사랑 상품권은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향사랑 상품권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고향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 하나인 상품권 발행 비용 지원으로 고향사랑 상품권 10% 내의 할인 판매 부담액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남지역에서는 영암군이 선정된 바 있다.

전남 22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가맹점 수와 판매금액이 미미한 수준이며, 구매자의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2000년 여수시가 도내에서 최초로 발행했으며, 2017년 말 기준 누적액 1644억원, 2017년 한 해 발행된 지역화폐 규모는 120억원 정도다.

2018년 4월 유통에 들어간 순천시 7

월 1일부터 외래 관광객의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 입장료 일부 상품권으로 환급하고 있으며, 2001년 발행을 시작한 곡성군의 누적 발행액 262억원(2018년 4월 30일 기준)이다.

광양시는 2008년 1월 전국 최초로 카드식 고향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이들 시·군은 직원 포상, 출산장려금 및 돌기념, 대회 참가자 포상, 경찰공무원 격려금, 전입지원금 장려금, 경품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 위원은 고향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가맹점 발굴 및 확대 ▲지역화폐에 대한 주민교육과 홍보 강화 ▲수당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상품권 활용 범위 확대 검토 ▲지역맞춤형 판매촉진 전략 ▲규제 장치, 자금조달 방안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 총리, 아프리카·중동서 '비즈니스 포럼'

대통령 전용기로 출국



이낙연(사진) 국무총리가 케냐·탄자니아·오만 등 아프리카와 중동 3개국 공식 방문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공군1호기)를 타고 19일 오전 서울 성남공항공에서 출국했다. (사진)

이 총리는 이 3개국에서 '비즈니스 포럼'을 열어 한국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세일즈 외교에 나설 계획이다.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하는 경제사절단으로 49개 한국기업 소속 70여명이 이 총리와 동행하며, 이들은 대부분 개별 일정상 전용기를 타지 않고 민항기를 이용해 현지에서 모인다.

대한민국 총리의 케냐·오만 방문은 각각 6년 만이고, 탄자니아 방문은 1992년 수교 이래 첫 정상급 방문이다. 이 총리는 19~21일 케냐 방문 중 양자회담을 통해 교역·투자 확대, 한국기업의 케냐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 진출 확대, 한국 스타트업 기업의 진출을 협의한다.

21~23일 탄자니아 방문에서는 총리 회담을 통해 양국 간 개발협력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를 협의한다.

23~25일 오만 방문에서는 부총리와 회담을 통해 에너지·건설·인프라 등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 시티, 보건·의료, 방산 등 고부가



가치 신산업 분야 협력을 협의한다. 이 총리는 "전용기를 함께 쓰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처음으로 전용기를 타고 순방에 나섰다. 1998년 11월 당시 김종필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공군1호기를 타고 일본에 한일 각료회담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장거리 순방에 총리가 공군1호기를 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

"세월호" 국가 잘못 제대로 밝힐 때까지 계속 싸울 것

국가배상 책임 인정 의미·반응

청해진해운 등 무책임한 대응 목표 해경 초기 부실 구조 사건 중대성 참작 책임 인정 유족 "책임 인정은 당연 2심서 더 큰 책임 물어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청해진해운 관계자들과 세월호 선원들의 무책임한 대응, 목표해경 등의 초기 부실 구조, 유족들의 지속적인 고통,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분쟁, 사건의 중대성 등을 참작해 국가의 배상책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5명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해왔다. 4·16 세월호가족협의회는 19일 법

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국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데는 아쉬움을 표했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유족들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다. 당연하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도대체 국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었다"며 "단순히 정부나 청

해진해운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무능을 넘어 아예 희생자들을 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참사 이후엔 진상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피해자들을 등급 매기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며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2년 10개월가량에 걸친 소송에서 겪은 유족들의 마음고생도 전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3개월, 재판에만 2년 10개월이 걸렸다"며 "내 새끼, 내 가족이 희생됐기 때문에 이 시

간 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버텼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부 유족들은 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판결은 세월호 선사와 선원, 해경 정장의 형사사건에서 인정한 국가 책임 범위를 넘진 않은 거로 보인다"며 "국가의 구조실패 책임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살펴보고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북 비핵화 일정 시간 소요... 제재는 유지"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 사이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일부 이슈에서는 진전이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 헤더 나이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우리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해야 할 일은 많으며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이트 대변인은 "모든 대화에 대해 일일이 상세하게 말하지는 않았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팀은 매일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폼페이오 장관은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곳(비핵화)에 도달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기존의 제재에 대한 지속적인 시행을 배경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으로 부연하지는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임야·삽니다

당일 매입가능, 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펜션·가든 부지매매

-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사주학의 대가 동광스님비법공개

40년 내공으로 완성한 사주학 비법을 공개합니다

- 사주역학 학당 개설 -

- 일시: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 6시
- 장소: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미쇼핑 2층 (일월사 포교원)
- 대상: 사주학, 역학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학당에 참석하셔서 새로운 사주학의 비법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교원 (062) 524-8020
원 장 010-8024-1433

프린터 벤처기업 (주)소리안 보청기

당사는 보청기 및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기술보증기금 선정 프린터 벤처기업입니다. 사세 확장에 따른 광주·전남지사에서 근무할 열정을 가진 새로운 인재를 모집 합니다.

모집분야	직영지사 지사장(0명) 및 영업관리 담당자(0명)
근무지역	광주 및 전라남도 전역
담당업무	청각장애등급 절차 및 보조금 관련 안내 업무의 지사 조직관리
채용조건	영업관리 3개월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직영지사 지사장(정규직)으로 채용
우대사항	영업조직 관리 경험자 우대
지원서 접수	2018년 7월 16일(월)~ 7월 30일(월)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주)소리안 관리부 채용담당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jspark@sorian.co.kr 053-252-8585

SORIAN (주)소리안 관리부